

비자 제도 개선...전남도, 조선업 인력난 숨통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 고용비용 산정 기준 개정' 반영 고용 규모 합산에 숙련기능 인력·지역특화형 비자 인력 제외

영양 등의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들의 비자 제도가 개선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던 업계의 고민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전남도가 최근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용 산정 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 비율을 산정하면서 숙련기능 인력(E-7-4, 30%)과 지역 특화형 비자 인력(F-2, 50%)까지 합산해 처리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업계가 개선을 요구했었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히 컸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외국인력(E-7) 고용 비용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 인력을 제외시켜 외국인 인력 수급에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E-7)은 현대상호중공업에만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며, 전남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비자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4년) ▲특정활동 외국인력(E-7) 소득기준 국민총소득(GNI) 80%→70% 완화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천 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차 변경 제한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장은 "조선업은 서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선업 인력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기 유충 방역 19일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중흥동의 한 다중이용시설 정화조에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구제 방역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

전남도, 전력계통 협의체 첫 회의

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 등 계통 포화 해소 대책 논의

전남도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전남지역 전력계통 협의체 첫 회의를 나주 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열어 '전남지역 계통포화 해소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에서 한전은 호남지역 계통 현황 및 불철경부하기 대책을 소개했으며, 산업부는 계통 안정화에 대해 한전, 전남도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지역은 재생에너지 공급과잉으로 도내 모든 변전소의 계통포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지역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총 3만1345건, 2만6174MW로 이 가운데 상업운전은 1만9456건(62.1%), 5942MW(22.7%)이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계통포화로 대기 중인 사업자는 1만1889건(37.9%), 2만232MW(77.3%)에 이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AI 일제검사 가금농장 등 570개소 대상

전남도가 오는 26일까지 사육 중인 모든 가금농장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거래상인 차량 등 570개소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및 잠재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추진한다.

전남지역은 지난 6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설정된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아직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 도로 소독 지원, 가금농장 소독캠페인,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주요 방역 조치를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위험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소독 및 출입통제 등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 추진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수형 35명선발...직무교육·취업 등 지원

광주시는 "지역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2024년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장애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직무교육과 취업 알선을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특히 취업희망직종 사전조사와 구인기업 수요를 반영해 개인에 맞는 노동강도 분석,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1대1 매칭 등 취업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원스톱 지원한다.

광주시는 4월부터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장애여성 35명을 공개모집하고 직무교육, 사업장 취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062-511-0001)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총선 브리핑

김용재 "복합쇼핑몰 매출 1% 상생기금법 추진"

녹색정의당 광산을 예비후보

4·10 총선에서 광주 광산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김용재 예비후보는 "복합쇼핑몰 매출 1% 상생기금법 제정 등으로 유통 대기업이 지역에서 거둔 매출 일부를 지역에 환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지역순환경제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인력과 투자가 가속화돼 비수도권 대기업 유치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역외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지역에서 거둔 매출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해 선순환이 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위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

너지를 확대하여 자립적인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고 집수리, 단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김 후보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제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확대 등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내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매를 촉진해 도농 순환경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추천서 발급

외국인 장기 정착 등 지원

광주시는 "법무부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자체장 추천서를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제도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동분야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2년 단위로 연장에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가

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대상은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등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수준(토픽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등록 외국인근로자로,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추천서 발급을 시작했으며,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 받을 계획이다. 특히 업무 숙련도와 사

회통합도에서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평균소득, 나이 등의 이유로 전환 요건 최소 점수(200점)를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추천 가점 30점을 부여한다.

광주시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에 전자우편(katarsis700@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광역지자체 추천제도가 기술 숙련 외국인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과 지역사회 정착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장기 정착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최대 할인 ~45%

레라벨리 상품사고!

캠핑용품 챙겨받자!

2024. 3. 11. ~ 3. 31.

5만원 이상 구매시

여행용파우치

구매자 전원

10만원 이상 구매시

수저커트러리세트

20만원 이상 구매시

캠핑용 톨테이블

※ 본 이벤트의 쿠폰은 1인 1매로 지급됩니다.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